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신명기 9장 1-8절

1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3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앞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의 거역하였도

8 호렘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신9:1-8)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 (33회)

- 하나님께서 세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시하고 계심.
- 인간 타락 이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세대간에 나눠 지게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

-예를 들면 아버지의 죄는 그 자손들이 3-4대까지 나눠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조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또 아버지의 선행이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20:5)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20:6)

-감사해야 한다. 조상의 죄가 내게 임해서 내가 험한 꼴을 당한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 때문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과, 내 죄도 자녀들에게 나눠지게 되어 감사해야 한다.

-다만, 아버지가 당해야 할 것까지 내가 당하지는 않는다. 또 내가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 하기 나름인 것이다.

-특히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계산해서 그 벌을 자손의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자그마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악의 영향력보다 선의 영향력은 크고 강력한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 선한일을 하려면 삼사 대까지 참을줄도 알아야 한다. 왜냐면 조상의 악한 영향력이 미치는 기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성공하거나, 재빨리 성공하려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한다. 적어도 삼대까지는 내다보아야 인생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

-즉 내가 잘하면 삼대 안에 성공할 수 있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 그 성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스스로는 자신이 속한 가문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작정하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두가지의 반응으로 나뉜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뉜다.

성경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은 그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 받는다. 즉 부모의 축복을 물려받는다. 이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부모의 저주를 물려 받는다. 이들은 삼사대 안에 망한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든지 상관없이 없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자신의 부모를 섬기고, 비록 그 부모가 저주를 많이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부터 다시금 축복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자.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 그들로부터 축복을 물려 받고, 저주는 피해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아버지 세대의 기름부음   말씀:  
디모데전서1장15-20절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과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 가운데 후메나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딤후1:15-20)

- 6시 30분부터 식사를 할 수 있음. 다만 김밥과 국물이 있음.
- 임직자들이 헌금을 수납할 것임. 아직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만 도우면 됨. 1000-10000이 기준. 그 이상은 감동 되는대로.
- 강사 접대의 원칙. 접대를 원하는 분과 강사 목사님.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가 아님. 영적 자식이다. 캐토릭은 신부라고 부름. 성직자를 아버지라 호칭한다.

아버지 세대의 기름부음이란 유산을 의미함.

1. 영적 가르침. 앞서 경험한 자들의 교훈. 그런 어려움들은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누구나 그런 어려움은 겪는데, 교훈을 받으면 어려움을 이긴다.

2. (16절)유업을 베푸는 자가 먼저 일절 오래 참는다. 처음에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다. <개미> 그러나 한번 산업을 일으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유지된다.
3. (18절)예언으로 코칭한 것을 잊지말라. 예언은 맞춤형이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지도한다. 예언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잘 아는 아버지가, 집안의 내력을 잘 알아서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약한지를 아는 아버지가 코칭하는 것은 예언적이다.
4.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싸우지 않으려고 피하지 말고, 선으로 적극적으로 되어라.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파선하지 말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였다.(아마 성직의 대상들이었을 것이다.)